

고대 이스라엘 가옥구조 중 **הָלֵךְ**는 무엇인가

임미영*

1. 들어가는 말

“번역은 반역이다.”¹⁾ 결국 원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다면 번역된 단어는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반역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경은 사실 한국적 사고방식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다. 성경은 고대 근동의 문화와 생활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와 관습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성경 속의 많은 단어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가 시도되어 왔다.

그러한 예들 중 본 논문은 특별히 고고학적으로도 이미 검증된 **הָלֵךְ**라는 단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한국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다락으로 번역되었다. **הָלֵךְ**의 바른 이해는 “이층”으로서 이렇게 번역될 때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구절은 새로운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 필자는 먼저 한국의 다락구조를 살펴보고 히브리어에 있어 **הָלֵךְ**의 의미를 고찰한 후 고고학을 통해 발견된 고대 이스라엘의 건축양식을 논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필자는 이 단어에 대한 그리고 나아가 고대 이스라엘의 일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한국의 다락²⁾

일반적인 한옥의 건축구조는 흙을 발로 밟아 다져 만든 마당이 있고 이 마당보다 높게 널빤지 등을 평평하게 깔아 만든 공간인 마루로 올라가 안방이나 건넌방

* 서울신학대학교 강사, 고고학, 구약학.

1) 민영진 2007년 겨울 개인적인 대화에서.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다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26-27.

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 방들의 바닥은 마루와 같은 높이에 있고 이 높아진 공간의 방바닥에는 온돌이 깔려 있다. 안방의 다른 측면에는 부엌이 위치해 있다. 부엌의 아궁이에서 불을 때 안방의 온돌을 덮게 하였다. 부엌은 보통 마당의 지표면보다 50-60cm 낮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미 방의 바닥이 마당보다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엌 위의 천장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고 이 높아진 공간을 이용하여 방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방을 “다락”이라 불렀으며 대부분 해충이나 습기 등으로부터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였다. 다락은 안방의 부엌과 면해 있는 아랫목의 벽에 문을 만들어 출입했다. 때때로 다락은 방이나 침실로도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평균 높이가 1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좁고 작은 공간이어서 활동적이지 못했다. 물론 상류 주택 중에는 좀 더 높은 누다락이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수장 공간의 역할이 컸다. 다락은 현대식 건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3. עליה의 어원적 의미

구약 성경에서 עליה(복수 עליות)는 13회 등장한다. 이 단어는 ‘올라가다’의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עלה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³⁾ 사무엘하 18:33 (위층), 시편 104:13(누각), 그리고 느헤미야 3:31(성루) 외에는 『개역개정』에서 모두 다락으로 번역되었다. 이 단어를 다락으로 번역하는 것은 한국적 건축구조에 적당한 단어일 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공간이다. 이 단어는 2층으로 번역이 되어야만 한다. 오히려 예외로 제시된 위의 세 절의 번역은 그 의미에 있어 바른 번역이다. 뒤에서 논의되겠지만, 사무엘하 18:33과 느헤미야 3:31의 문위에 있는 방들은 분명 이층을 말하며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능한 건축구조이기 때문이다. 시편 104:13의 עליה는 YHWH가 산에 물을 부어 주시기 위해 계셨던 장소이다. 누각은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과 벽이 없이 마룻바닥을 높게 다락처럼 지은 집⁴⁾이기에 올바른 이해라고 본다.

영어 성경에서 עליה는 Upper room(NIV)이나 Roof chamber(RSV)로 번역이 되었다. 전자의 경우는 2층방의 의미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공간은 서양의 가옥 구조를 생각해 볼 때 지붕 아래 좁은 공간으로서 오래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3) E. Klein, *A Comprehensive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Hebrew Language for Readers of English*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473.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누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907.

들을 두는 곳이었기에 우리의 다락과 유사한 느낌을 가진다. KJV의 Parlour로의 번역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귀족 집에 있는 손님을 맞이하는 작은 응접실로서 עליה라는 단어와는 전혀 무관하다.

『개역개정』성경에서 עליה가 아닌 다른 단어가 다락으로 번역된 예는 צ״ע 혹은 צ״ע이다. 이 단어는 열왕기상 6:5-10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 건축한 장소로서 알려지지 않은 건축 용어이며 유사한 단어로 에스겔 41:5-6의 골방으로 번역된 צלע가 있다.⁵⁾ 이 용어는 성전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부속 건물(wing 혹은 side-chamber/structure; NAS; JSP; KJV)로 생각된다.⁶⁾ 그러나 역대하 28:11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성전의 설계도 상에는 עליה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또한 성전의 높이가 15m(30규빗)였던 것을 생각할 때 아마도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건물들이 2층 이상의 건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⁷⁾

4. 이스라엘의 עליה

4.1. 일반 가정집

기원전 13세기 시로-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기둥으로 공간을 나누는 형태의 집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⁸⁾ 이러한 건축물의 가장 발전된 형태가 기원전 11세기 텔 마소스(Tel Masos), 이즈벳 자르타(‘Izbet Sartah), 그리고 텔 카실레(Tell Qasile) 등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등장했다.⁹⁾ 이 가옥은 일반적으로 “4방 가옥(Four room-House)”라 불렸으며 10세기 이후 텔 엘 파라(Tell el Farah/북-성경의 디르사)라든가, 하술, 세겜, 텔 셰바(Tel Sheva) 등 이스라엘 민족의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¹⁰⁾ 예빈(Yeivin)과 아비-요나(Avi-Yonah)는 이 집을 전형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집”이라고 불렀고¹¹⁾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에 동의하고 있

5) BDB 427.

6) BDB 427; Bible works צ״ע.

7) P. King and L. Stager, *Life in Biblical Israel* (Louisville and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335, Ill. 194 참조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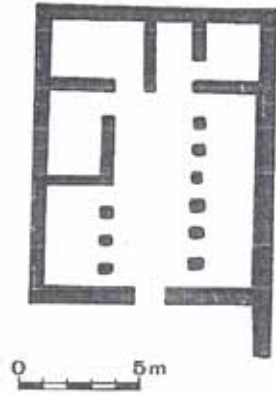
8) 이 가옥의 발견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설과 연대에 관한 논의는 본 논문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주제는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I. Finkelstein and N.A. Silberman, *The Bible Unearthed* (New York: Free Press, 2001)와 Finkelstein의 글들을 참조하십시오.

9) E. Netzer, “Domestic Architecture in the Iron Age”, A. Kempinski and R. Reich, eds., *The Architecture of Ancient Israel, from the Prehistoric to the Persian Periods*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2), 193; A. Mazar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New York: Doubleday, 1992), 486 재인용.

10) A. Mazar,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486-487.

다.12) 이 가옥의 형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방이 네 개가 있는 집이다

<그림 1> 텔 엔 나스베의 “4방 가옥” House M. 379 평면도



출처: E. Netzer, “Domestic Architecture in the Iron Age”, 198, Fig. 9.

<그림 2> “4방 가옥” 복원도



출처: P. King and L. Stager, *Life in Biblical Israel*, Ill. 15.

11) S. Yeivin and M. Avi-Yonah, *The Antiquities of Israel* (Tel Aviv: Kibutz Meuhad, 1955), 90 (Hebrew).

12) A. Mazar,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485-489; P. King and L. Stager, *Life in Biblical Israel*, 28-29.

집의 평면도 <그림 1>를 그렸을 때 “돌로 만든 기둥들이 이열로 서 있어 집안은 가운데의 큰 방과 양쪽에 나란히 놓이게 된 측면의 방들로 이루어졌다 이 나란히 있는 세 개의 방들은 건물의 후부에 옆으로 길게 펼쳐진 넓은 방까지 쪽 뻗어 있다.”¹³⁾ 중앙의 방은 안뜰로 주로 불리는데 땅을 밟아 고르게 다진 우리의 마당과 유사한데 반해 측면 방들의 바닥은 자갈이나 판석으로 포장된 경우가 많았다. 바깥뜰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의 짧은 벽면의 가운데 입구로 들어가 중앙의 방으로 통하게 되어 있었다. 벽의 2-3줄은 돌로 기초를 다졌지만 대부분은 진흙 벽돌로 지어졌다. 물론 집 주인의 사회적 지위와 건축 공간에 따라 건축에 사용된 재질이 바뀌기도 하였다.¹⁴⁾ 높이는 기둥의 높이에 따라 달랐는데 일반적으로 2m였으며 그 크기도 다양했지만 평균 10×12m 정도였다.¹⁵⁾ 기둥들은 보통 높이 1-1.5m의 직사각형의 돌들일 경우도 있지만 여러 돌들을 쌓아 만들기도 했다.¹⁶⁾ 이 기둥들은 **הכלל**라 불리는 2층을 지탱하고 있었다. 가옥의 실제 높이가 모두 보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복원할 수는 없지만 채광은 창문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¹⁷⁾ 창문은 **חלון** 구멍을 내다는 의미의 **חלל**을 어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벽에 낸 단순한 구멍이었다 이 구멍은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비를 동반한 추위를 막기 위해 되도록이면 작게 내었을 것이다 창문은 또한 환기와 더불어 집 안에서 불을 피워 생기는 연기를 내보내는 출구로도 사용되었다. 고고학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집에서도 굴뚝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국어 성경의 호세아 13:3의 굴뚝으로 번역된 **הבית** 역시 벽면에 낸 구멍이나 창문이었을 것이다¹⁸⁾ 발견된 그릇들의 양을 보아 한 채의 집에는 보통 5-7명 정도가 살았을 것으로 보이며 큰 집의 경우 10-11명의 3세대가 함께 살기도 했다.¹⁹⁾

1층의 측면의 방들은 가축의 우리로 사용되었다(<그림 2>). “동물들을 먹일 수 있도록 구유들이 기둥들 사이에 놓여 있었고 기둥들은 지붕이나 2층을 떠받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방들을 나누는 구실도 하고 있었다.”²⁰⁾ 1층의 안뜰에서는 현무암이나 단단한 돌로 만든 곡식을 가는 맷돌이나 요리용 그릇들 그리고 가사 활동에 필요한 도구들이 발견되었다.²¹⁾ 초기의 발굴에 의하면

13) P. King and L. Stager, *Life in Biblical Israel*, 28.

14) A. Mazar,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486.

15) Ibid.

16) Ibid., 485.

17) P. King and L. Stager, *Life in Biblical Israel*, 30.

18)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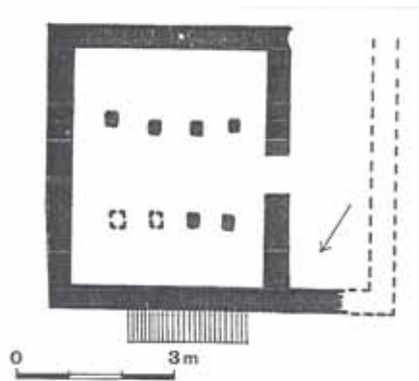
19) A. Mazar,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489.

20) P. King and L. Stager, *Life in Biblical Israel*, 34.

21) E. Netzer, “Domestic Architecture in the Iron Age”, 193; A. Mazar, *Archaeology of the Land*

이 중앙의 방은 천정이 없이 하늘로 그대로 뚫려 있는 공간이었다고 생각되었다.²²⁾ 그러나 네젤(Netzer)은 이 공간을 천정을 덮어 닫은 공간으로 보았다.²³⁾ 그는 보통 2m의 너비도 되지 않는 이 좁고 긴공간이 안뜰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양 측면의 기둥 위에 대들보를 깔고 두 방을 연결한 후 2층을 위한 평평한 천정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이 공간에서는 화덕이나 불을 피우던 구멍들 역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는 주로 음식을 준비하거나 집안의 온기를 위해 불을 피웠을 것이며²⁴⁾ 결국 닫혀진 공간이었음이 분명하다. 세겜의 건물 1727의 최근 증거에 의하면 이 안뜰에서도 목재로 만든 천정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2층에서 사용된 베틀의 추들이 이 천정의 흔적 위에서 발견되어 안뜰 역시 닫혀진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²⁵⁾ 뒤쪽의 가로로 놓여진 방은 저장고의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하술의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는 “4방 가옥”



출처: E. Netzer, “Domestic Architecture in the Iron Age”, 198, Fig. 8.

1층이 동물의 거주와 저장의 구실을 한 장소라면 2층 *היכל*은 사람들이 생활했던 공간이었다. 이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층에서 나무로 만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중앙의 기둥에 층계를 대어 사용하기도 했다. 하술의 건물 1037 (26) <그림 3>과 예루살렘의 아히엘의 집 <그림 4>의 경우 밖에서 층계를 이용해

of the Bible, 10,000-586 BCE, 487.

22) A. Mazar,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485.*

23) E. Netzer, “Domestic Architecture in the Iron Age”, 196.

24) P. King and L. Stager, *Life in Biblical Israel, 34.*

25) L. Stager, “The Archaeology of the Family in Ancient Israel”, *BASOR* 260 (1965), 16; P. King and L. Stager, *Life in Biblical Israel, 35.*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다. 2층 전체는 지붕으로 덮여 있었다.

<그림 4> 아히엘의 “4방 가옥”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출처: 다윗 성 발굴 팀, 임미영 소장 사진

건물의 지붕은 평평했으며 목재 대들보의 양 끝이 벽에 의해 지탱되도록 가로질러 놓였다. 중간 중간에 세로로 이 대들보를 받치기 위한 기둥들이 세워졌다. 지붕을 회반죽으로 덮기 전 갈대와 나뭇가지들이 서까래로 사용되었다. 작은 나뭇가지들과 진흙, 짚 등을 이 위에 얹었고 돌로 된 굴림대로 고르게 그리고 단단하게 다져 비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하였다.²⁷⁾

지붕은 신명기 22:8에 기록된 것처럼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이 만들어져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인들은 아마도 무더운 날씨를 달래기 위해 이러한 지붕에 잠을 청하기도 했는데 사무엘과 사울은 산당에서 내려와 지붕에서 잠을 잤다(삼상 9:25-26). 또한 여인들은 이 지붕 위에서 목욕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사면이 급했던 다윗성의 꼭대기에 위치했을 것으로 보이는 다윗의 궁전²⁸⁾에서 다윗이 일반 가정의 지붕 위에서 목욕하는 밋세바를 본 것은 쉽게 설명될 수 있다(삼하 11:2). 지붕 위에서는 YHWH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

26) Y. Yadin *Hazor*, The Schweich Lectures of the Birtish Academy 1970 (London: Oxford Univ. Press, 1972), 183-184, Fig. 49; E. Netzer, “Domestic Architecture in the Iron Age”, 198 재인용.

27) P. King and L. Stager, *Life in Biblical Israel*, 24.

28) 최근 다윗의 궁전 혹은 행정건물 일 것으로 보이는 건물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전체 윤곽이 드러난 것이 아니기에 이 논문에서 논의하지 않겠다. 참조; Eilat Mazar, *The Palace of King David: Excavations at the Summit of the City of David. Preliminary Reporty of Seasons 2005-2007* (Jerusalem: Shoham Academic Research and Publication, 2009).

한 일들도 자행되었다. 예루살렘과 유다 왕들의 집이 그들의 집 위에서 하늘을 향한 제사를 드렸다(렘 19:13; 32:29). 결국 열왕기하 23:12의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גלגל) 지붕에 세운 제단이라는 의미는 이층의 집의 지붕 위에 제단이 있었음을 말한다. 이스라엘의 유적지는 아니지만 아스겔론의 주전604년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집의 지붕 위에 향을 피우는데 사용한 돌 재단이 얹혀 있는 채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당시 시로-팔레스타인에서는 이러한 종교적 관습이 있었음이 증명되었다.²⁹⁾

<그림 5> 광벽으로 둘러싸인 텔 세바



출처: Z. Herzog, *Archaeology of the City*, Fig. 5.31.

이러한 형태의 가옥은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좀 더 대형의 공공건물들에도 사용되었다. 텔 베이트 미르심(Tell Beit Mirsim)이나 텔 세바<그림 5>같은 유적지에서는 “4방 가옥”들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성벽의 일부분처럼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광벽(casemate wall)”의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형적인 요새시설로서 평시에는 일반가정으로 사용되었지만 전시에는 그 공간을 떼꾸어 두꺼운 방어벽으로 사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³⁰⁾. 이러한 성벽의 위에는 혹은 성문 위에는 2층의 방이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예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문 위층(עַל-עֲלִיתַי הַשָּׁעָרָה 삼하 19:1)으로 올라가 기도한 방이며 느헤미야가 중수한 성 모퉁이 성루(הַפְּנֵי הָעִיר 3:31)이다.

29) P. King and L. Stager, *Life in Biblical Israel*, 345.

30) Ibid., 34.

4.2. 궁전 혹은 행정 건물

이스라엘의 “수도들에 있었던 왕실용으로 배정된 구역들은 매우 컸고 잘 설계되어져 있었다. 그 면적이 6.5에이커에 달했던 사마리아의 성채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왕실 구역(어쩌면 전자보다 더 컸을 수는 있겠지만)의 도시의 크기는 거의 같았다.”³¹⁾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윗 시대부터 3,000년 동안 수도의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예루살렘은 이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전쟁과 회복을 반복했지만 과거의 흔적들은 땅 속에 묻혀 버렸거나 재사용되어 사라져 버렸다. 다윗의 궁전이 있었던 다윗 성은 현재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고 솔로몬의 궁전과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는 무슬림의 황금 돔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어 궁전의 모습을 밝혀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행정 중심도시였던 므깃도, 라기스, 사마리아 등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왕실이 사용했던 건물들을 재현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일반 가정집의 기본 형태인 “4방 가옥”이 이미 기원전 13세기부터 대형 건물의 기본 배치도와 유사했기 때문에³²⁾ 궁전과 일반 가정집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었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와 도시 내부의 위치 그리고 건물에 사용된 값비싼 재료 등을 통해서 우리는 궁전 혹은 행정 건물을 구분해 낼 수 있었다.

왕실 구역들은 대규모의 건축 공사를 통해 방어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이 구역 안에 가장 크고 정교하게 잘 갖추어진 건물이 바로 궁전으로 추측되었다. 궁전은 왕과 왕의 가족들의 거주 장소이기도 했지만 또한 고위 관료와 지방 통치자들의 거주지로서 행정의 중심 역할을 했던 건물이었다³⁴⁾ 라기스와 사마리아의 궁전 같은 경우에는 흙을 높이 쌓아 주변보다 높은 플랫폼을 만들어 그 위에 세워졌기에 분명 일반 백성들이 우러러 보았을 것이며 이는 통치자의 세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³⁵⁾

31) A. Mazar,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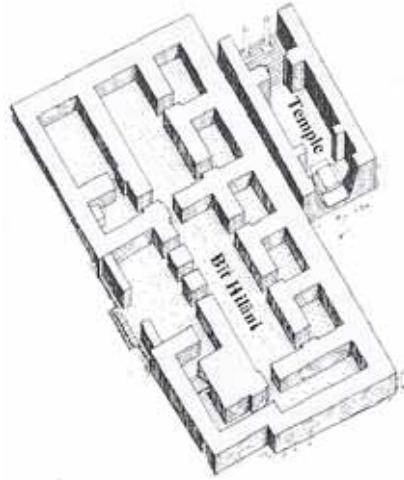
32) *Ibid.*, 472.

33) R. Reich, “Palaces and Residencies in the Iron Age”, A. Kempinski and R. Reich, eds., *The Architecture of Ancient Israel, from the Prehistoric to the Persian Periods*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2), 202.

34)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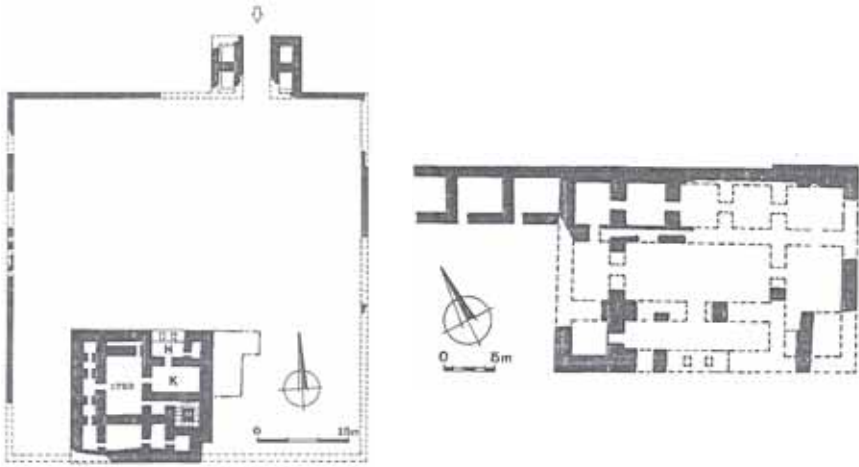
35) A. Mazar,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471-472.

<그림 6> 텔 타이낫의 *bīt hilāni* 양식의 궁전과 신전



출처: P.King and L.Stager, *Life in Biblical Israel*, III. 206

<그림 7> 므깃도의 *bīt hilāni*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 1723(좌)과 6000(우)



출처: R. Reich, “Palaces and Residencies in the Iron Age”, 204, Fig.2,3.

고고학적으로 시로-팔레스타인 지역의 궁전은 유사한 형태의 건물이었음을 밝혀냈는데 이는 *bīt hilāni*라 불린다. 아카드어로 “창문이 있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건물은 기원전 2,000년 경 북 시리아에서 기원하여 기원전 9-7세기 진

지르리(Zincirli) 혹은 텔 할라프(Tell Halaf), 텔 타이낫(Tell Taynat)<그림 6> 등의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 프랑크포르트(Frankfort)는 북시리아 알라라크(Alalakh)의 *bīt hilāni* 건물의 배치도를 살펴보고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³⁶⁾ 이 *bīt hilāni*는 직사각형으로 건물의 긴 면에 접한 층계를 올라가 입구를 통과해 나란히 배치된 두개의 긴 홀로 들어가게 되고 입구에 있는 첫 번째 홀은 낭실로서 1-2개의 기둥들이 서 있다. 이 낭실의 안쪽의 한 면에는 계단이 있어 2층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다. 낭실 안쪽의 홀은 왕의 보좌가 있던 방이었다. 이 묘사는 우리에게 솔로몬의 궁전을 떠올리게 한다.³⁷⁾ 열왕기상 7:1-12에서 볼 수 있는 솔로몬의 궁전에는 기둥을 세운 낭실이 있었고 이 낭실을 지나면 심판하기 위한 보좌의 방이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솔로몬의 궁전의 실재를 증명해 낼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시쉬킨(Ussishkin)은 비록 그 건축의 연대에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므깃도에서 솔로몬과 같은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건물들을 발견했다.³⁸⁾ 므깃도의 건물 1723과 6000<그림 7>은 비록 기초석들만이 겨우 보존되기는 했지만 *bīt hilāni* 양식으로 지어진 것은 확연했다. 더불어 보좌가 있던 방의 뒤쪽에 작은 방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솔로몬의 궁전의 보좌의 방 뒤 다른 뜰에 있던 왕의 거처할 장소들을 연상하게 한다.

<그림 8> 모나게 다듬은 돌을 단면과 장면이 보이게 쌓은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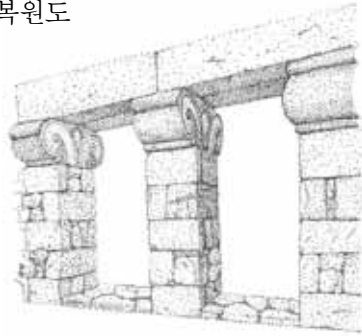
출처: 텔 단 발굴팀, 임미영 소장 사진

36) H. Frankfort, "The Origin of the Bit Hilani", *Iraq* 14 (1952), 120-131.

37) D. Ussishkin, "King Solomon Palaces", *BA* 36 (1973), 78-105.

38) D. Ussishkin, "King Solomon's Palace and Building 1723 in Megiddo", *IEJ* (1966), 174-186.

<그림 9> 프로토 에올릭 기둥머리 장식과 복원도



출처: 사진-이스라엘 박물관, 임미영 소장 사진; 복원그림-R. Reich, “Palaces and Residencies in the Iron Age”, 213, Fig.10.

솔로몬의 궁전은 그 배치도에 있어서는 북시리아의 *bīt hilāni*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건물의 장식 요소나 석공 기술은 피니키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경에서도 다윗(삼하 5:11; 7:2; 대상 17:1; 대하 2:2)과 솔로몬이 그들의 건축에 두로의 도움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사마리아의 경우 피니키아 지역의 시돈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왕상 16:31)의 궁전에서 피니키아의 영향을 발견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고고학적으로 이러한 피니키아의 영향은 위에서 언급된 행정도시의 궁전들에서도 발견된다 피니키아 건축 기술의 첫 번째 특징은 모나게 다듬은 석공 기술(Ashlar Masonry)<그림 8>로 기원전 13세기 이미 우가릿과 키푸르스에서도 사용된 바 있으나 이 기술을 발전시켜 사용한 것은 피니키아라고 보고 있다.³⁹⁾ 이 석공 기술은 돌을 채석하여 육면을 정교하게 모나게 다듬어 입방형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건물의 기초를 쌓기도 하고 전체 벽을 쌓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돌은 단면과 장면(Headers and stretchers)을 번갈아 가며 쌓아 지진의 완화 효과를 보기도 했다.⁴⁰⁾ 이 석공 기술은 하술, 사마리아, 므깃도, 게셀, 단 등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남왕국 유다에서는 예루살렘, 라기스, 라맛 라헬 등에서 발견되었

39) A. Mazar,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474. 이 석공 기술의 초기의 예들이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데 반해 피니키아에서는 단지 철기 후기시대와 피니키아 식민지에서만 발견되어 그 기원에 대한 논란이 있다 샤일로(Shiloh) (*The Prot-Aeolic Capital and Israelite Ashlar Masonry*. Qedem 11. Jerusalem: Institute of Archaeology, Hebrew University, 1979) 같은 경우에 그는 이스라엘 외부에서 발견되는 이 돌들의 예가 솔로몬과 아합의 시대보다 후대인 것으로 보아 이 석공 기술을 이스라엘 특유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마자르(Mazar)는 이스라엘에 비해 피니키아 지역의 발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아직까지 그 기원에 대한 문제는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474).

40) Y. Shiloh, *The Prot-Aeolic Capital and Israelite Ashlar Masonry*, 52.

다. 그러므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패망하면서 그들이 이처럼 다듬은 돌로 집(בְּתוּי זָוִית)을 잘 건축하였지만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라고(암 5:11)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피니키아의 영향은 프로토 에올릭 기둥머리(Proto Eolic Capital)<그림 9> 양식으로서 야자수의 잎이 양쪽으로 떨어져 마치 소용돌이 모양을 하고 있는 조각이 새겨진 것이다. 이러한 예술 기조는 가나안과 피니키아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던 것으로 유사한 형태의 모양들을 피니키아의 예술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둥머리들은 므깃도, 사마리아, 하술, 예루살렘, 라맛 라헬 등의 왕실 구역에서 발견되었다. 마지막의 예는 피니키아 양식의 상아 조각품들에 등장하는 창문 난간으로서 라맛 라헬에서 그 예가 발견된 바 있다<그림 10>. 아마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야는 이러한 창문 난간이 있는 사마리아의 2층(הַשְּׂבָכָה בְּעֵלְיָתוֹ אֲשֶׁר בְּשַׁמְרוֹן)에서 떨어져 병들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피니키아의 건축 기술이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것은 이 두 국가가 존재했던 시간에 일반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에 있어서 두 국가의 왕정이 서로 융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한 당시 두 국가가 가장 훌륭한 예술 작품들을 추구했던 노력을 설명해 주고 있다”.⁴¹⁾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피니키아의 영향을 받아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던 궁전 역시 2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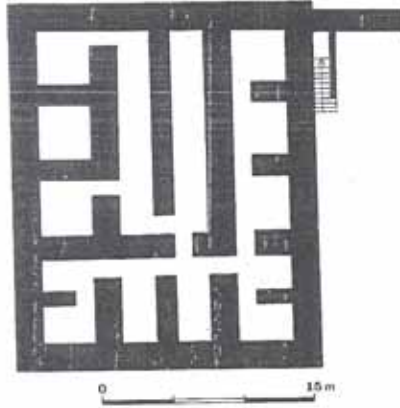
<그림 10> 라맛 라헬에서 발견된 창문 난간 장식(좌)과 같은 장식이 묘사되어 있는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상아 조각(우)



출처: 이스라엘 박물관, 임미영 소장 사진

41) A. Mazar,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475.

<그림 11> 하솔의 B구역에서 발견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성채” 건물



출처: R. Reich, “Palaces and Residencies in the Iron Age”, 207, Fig. 6.

bīt hilāni 양식으로 지어진 솔로몬의 궁전은 장이 일백 규빗이요 광이 오십 규빗이며 고가 삼십 규빗이다. 이집트의 단위 규빗을 50cm를 평균으로 했을 때 건물의 크기는 50×25m의 직사각형 건물이며 그 높이는 15m이다. 이 높이는 2층 이상의 건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솔의 B구역에서 발견된 기원전 9세기 중반부터 앗시리아에게 점령되기전까지(기원전 732년) 사용된 “성채”라 불려진 건물<그림 11>은 비록 *bīt hilāni*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은 아니지만 그 크기 (21.5×25m)는 므깃도의 건물 1723과 6000과 유사하다.⁴²⁾ 라이히는 이 건물이 당시 궁전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⁴³⁾ 우리는 이 건물 역시 한쪽에 계단이 있는 2층의 건물이었음을 목격할 수 있다. 궁전들의 지붕 역시 평평했을 것이며 앞서 논한 것처럼 유다의 여러 왕들은 이곳을 하늘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했다(렘 19:13; 32:29).

5. 성경 속의 עליה

이제 위의 고고학적 발견들을 통해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건축구조는 2층집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한국 성경에서 다락으로 번역된 עליה는 2층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 단어가 등장하는 몇몇 성경구절은 고대 이스라엘

42) R. Reich, “Palaces and Residencies in the Iron Age”, 208.

43) Ibid.

의 생활상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첫 번째 예는 벤냐민 지파 출신의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의 경우(삿 3장)로서 모압 왕 에그론의 집은 고대 근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bīt hilāni* 양식의 2층으로 된 궁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hilāni*를 한국적 다락으로 이해하고 이 구절을 읽게 될 때 왕의 궁전의 한쪽 면에 있는 높고 작은 공간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에그론이 한 나라의 왕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그가 쉬고 있었던 방은 작은 다락방은 아닐 것이다. 앞서 논의 된 것처럼 이러한 궁전 건물의 현관 옆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에훗은 에그론의 신하들에게 보이지 않은 채 2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했다. 에그론이 있는 2층의 문들이 잠긴 것을 보고 그의 신하들은 에그론이 발을 가리우고 있으리라고 짐작하는데(삿 3:24),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은 용변을 보고 있다는 히브리어 표현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다윗성의 부유층의 집이었던 아히엘의 “4방 가옥” 옆에서 발견된 돌로 만든 변기(44) 통해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혹은 가나안 땅에서 현대인들과 유사한 변기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기가 우리의 다락에 놓여 있었다는 상상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한 때 할펀(Halpern)은 에훗이 변기용으로 뚫린 파이프를 통해 신하들에게 들키지 않고 도망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45) 그림 12에서 보는 것처럼 고대 변기의 용변 구멍은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크지는 않았다.

<그림 12> 다윗 성에서 발견된 변기



출처: 임미영 소장 사진

44) J. Cahill et al., “It Had do Happen-Scientists Examine Remains of Ancient Bathrooms”, *BAR* 17 (1991), 64-69.

45) B. Halpern, *The First Historians*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8), 39-75.

두 번째 예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와 관련하여 등장한다. 엘리야는 기근 속에서 사르밧의 과부에게 음식을 요구했고 그녀는 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먼저 음식을 만들어 주고 나니 가루와 기름이 그 통과 병에 끊이지 않게 되었다. 엘리야와 그 가족이 여러날 먹었다는 15절의 언급을 통해 우리는 기적이 있는 후 엘리야가 이 과부의 가족과 함께 머물렀던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과부의 아들은 숨이 끊어졌고 엘리야는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거처하던 *עליה*로 올라가 자기의 침상에 누였다(왕상 17:19). 여기서 우리가 *עליה*이 아닌 2층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사르밧 과부가 아마도 기근에서 자신들을 구해 준 엘리야에게 자신들의 거처인 2층을 내주었음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녀는 수납공간으로 사용되는 좁은 방을 엘리야에게 내 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장소를 내 주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세 번째 예는 열왕기하 4:10에 나타난다. 수넴의 한 여인은 엘리사를 위하여 담 위에 작은 방(*עֲלֵית־קִיּוֹר קטנה*)을 만들고 가구를 준비하여 엘리사가 방문할 때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2층에 방을 지었다는 것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상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수넴 여인이 지은 이 집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9세기경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도시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요새 시설이었던 “곽벽(Casemate Wall)” 위에 지었을 것이다⁴⁶⁾. 엘리사 역시 이 *עליה*에서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다.

마지막 예는 예레미야 22:13-1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아들 야호야김이 왕이 된 후 자신을 위해 불의로 큰 집과 넓은 다락방(*בֵּית מְדוֹת וְעֲלֵיּוֹת מְרֻחָּים*)을 만들었기에 이를 비난하고 있다. 이집트의 왕 느고는 요시야를 뜨깃도에서 죽인 후(왕하 23:29, 기원전 609년), 여호야김을 왕위에 앉혔다. 그러나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YHWH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결국 그는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 나귀 같이 매장함을 당하게 된다(렘 22:19). 그의 재위 시기는 혼란의 시기였다. 잠시나마 이집트가 유다를 통치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바벨론 왕은 유다는 물론 이집트까지 점령하게 된다(왕하 24:7). 그가 지은 큰 집은 이 혼란의 시기에 악적인 행위였음이 분명하다. 더불어 그는 이 집을 지으면서 그 고용한 자의 품삯마저 주지 않았다. 아하로니(Aharoni)는 1962년과 1964년 두해에 걸쳐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라맛 라헬을 발굴한 바 있다⁴⁷⁾. 이 유적지의

46) Lawrence Stager, “The Archaeology of the Family in Ancient Israel”, *BASOR* 260 (1965), 16.

47) Yohanan Aharoni, *Excavations at Ramat Rahel, seasons 1959 and 1960* (Rome: Università degli Studi di Roma. Centro di Studi Semitici, 1962); *Excavations at Ramat Rahel, seasons 1961 and 1962* (Rome: Università degli Studi di Roma. Centro di Studi Semitici, 1964). 또한

VB층은 언덕의 꼭대기 지역에 위치했던 몇몇 건물로 이루어진 마을로서 히스기야 시대의 군사요새로서 확인되었다. 다음 층인 VA층에서는 50×75m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대한 건물의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비록 건물의 파손이 심하고 후대의 층들에 의해 그 모습을 재건하기는 힘들지만 다듬은 돌로 지어진 벽과 프로토-에올릭이라 불리는 전형적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행정건물에 사용된 기둥머리 양식,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된 돌로 만든 창문 난간의 발견은 이 건물의 크기와 웅장함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라맛 라헬의 기원전 7세기경의 이 건물을 여호야김이 그를 위해 지은 큰집이라고 보고 있다⁴⁸⁾. 더불어 우리는 당시 가옥들이 이층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제 여기서 기록된 넓은 다락방 עליה는 넓은 이층집을 지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라맛 라헬의 궁전 건물이 파손이 심해 건물의 높이와 층을 측정할 수 없지만 솔로몬의 궁전이 50×25m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예레미야가 왜 큰 집과 넓은 방을 지었다고 비난했는지 이해하게 된다.

6. 나가는 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עליה가 한옥의 한쪽 끝에 있던 작은 수납공간인 혹은 가족이 많을 경우 방으로도 사용되었던 다락이 아닌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주요 거주지였던 2층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원어의 의미와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이 문화적 혹은 생활적 관습이 우리와는 현저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배경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들의 관습과 흔적을 고찰하여 성경의 보다 바른 이해에 접근하여야 하겠다.

<주요어>(Keywords)

עליה, 다락, 2층방, 4방 가옥, *bīt hilāni* 양식의 궁전.

עליה, Roof chamber, Upper room, Four-room House, *bīt hilāni*.

(투고 일자: 2009. 7. 14, 심사 일자: 2009. 9. 14, 게재 확정 일자: 2009. 9. 14.)

1984년에 G. Barkay에 의해 발굴이 진행된 바 있으며 라맛 라헬 유적지에 대한 개인적인 대화를 수차례 나눈 바 있다.

48) A. Mazar,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426-427.

<참고문헌>(References)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Aharoni, Y., *Excavations at Ramat Rahel, seasons 1959 and 1960*, Rome: Universita' degli Studi di Roma. Centro di Studi Semitici, 1962
- Aharoni, Y., *Excavations at Ramat Rahel, seasons 1961 and 1962*, Rome: Universita' degli Studi di Roma. Centro di Studi Semitici, 1964.
- Cahill, J. et al., "It Had do Happen-Scientists Examine Remains of Ancient Bathrooms", *BAR* 17 (1991), 64-69.
- Frankfort, H., "The Origin of the Bit Hilani", *Iraq* 14 (1952), 120-131.
- Halpern, B., *The First Historians*,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8.
- King, P. and Stager, L., *Life in Biblical Israel*. Louisville and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Klein, E., *A Comprehensive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Hebrew Language for Readers of English*,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 Mazar, A.,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New York: Doubleday, 1992.
- Mazar, Eilat, *The Palace of King David : Excavations at the Summit of the City of David. Preliminary Report of Seasons 2005-2007*, Jerusalem: Shoham Academic Research and Publication, 2009.
- Netzer, E., "Domestic Architecture in the Iron Age", A. Kempinski and R. Reich, eds., *The Architecture of Ancient Israel, from the Prehistoric to the Persian Periods*,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2.
- Reich, R., "Palaces and Residencies in the Iron Age", A. Kempinski and R. Reich, eds., *The Architecture of Ancient Israel, from the Prehistoric to the Persian Periods*,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2.
- Shiloh, Y., *The Prot-Aeolic Capital and Israelite Ashlar Masonry*, Qedem 11, Jerusalem: Institute of Archaeology, Hebrew University, 1979.
- Stager, L., "The Archaeology of the Family in Ancient Israel", *BASOR* 260 (1965), 1-35.
- Ussishkin, D., "King Solomon's Palace and Building 1723 in Megiddo", *IEJ* (1966), 174-186.
- Ussishkin, D., "King Solomon Palaces", *BA* 36 (1973), 78-105.
- Yeivin, S. and Avi-Yonah, M., *The Antiquities of Israel*, Tel Aviv: Kibutz Meuhad, 1955 (Hebrew).

<Abstract>

What is עליה in the Architecture of Ancient Israel?

Dr. MiYoung Im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Bible was not written in Korean's cultural background, but rather in the cultural and daily backgrounds of the ancient Near East, containing the language and customs of the Israelite. Therefore, the approach to such backgrounds should precede to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Bible. Particularly, since a lot of Hebrew terms are not familiar with us, they have been mistakenly interpreted or understood. It is often the case that when we know the closer meaning of these terms, we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m. Among such terms, עליה has been discussed in this paper.

This word has been mainly translated as “darak” in Korean, meaning a roof chamber or an attic. “Darak” is a unique space in Korean's houses, which used to be located between the ceiling of a kitchen and a house roof. The average height of this room is only 1m and its entrance is made through the door on a wall of the main room (called “anbang”). This room usually functions as a storage or a spare room when there are many members in the family.

However a unique house called the “Four-room House” has been found in various sites of Israel and Syro-Palestine area and interpreted as “the Israelite House”. As the designation shows, there are four rooms in its plan. Two rows of stone pillars vertically divide the space into three, and the latter reaches to a broad room running across the width of the house. According to archaeological findings, the central room was used for food processing or as a workshop, and two side rooms were used as stables for livestock. The broad room was used as a storage. Then, one may ask where the people lived. Since there are remains of steps and ceilings on the first floor, such house was completely roofed and a second story existed.

This second story, עליה in biblical Hebrew, served as the main living space. In this case, the widow from Zarephath who was saved by Elijah in the drought (1Ki. 17:8-24) bestowed to Elijah to lodge at עליה (the second story) not at

“darak” which means more like a storage space. Thus this was the space where her daily life was occupied.

In addition, steps are visible in the corner of the portico leading to the second story in *bīt hilāni*, which is the representative building of administrative architecture or a palace in Syro-Palestine region. If we read עליה again as “darak” in Jdg. 3: 24-25, it is impossible that such a space existed in the palace of Eglon, the King of Moab. Since there were steps in the portico, Ehud was not caught by any servants of Eglon even though he killed their king. As the plan of Solomon’s palace described in 1Ki. 7:1-12 is similar to *bīt hilāni*, his palace must also have the second story. On the roof of such building and of Ahaz’s עליה (“darak” in Korean Bible), Kings of Judah gave offerings to other gods (2Ki. 23:12; Jer. 19:13; 32:29). In the national crisis, Jehoiakim(609-598 BCE) built a spacious house with large עליה (“darak” in Korean Bible) for himself, and so Jeremiah rebuked him (Jer. 22:13-14). According to such understanding about the culture of the Israelites through the Hebrew and archaeological remains, עליה must thus be translated as a second story or an upper room rather than “darak” in Korean.